

석사학위청구전

우자천려^{愚者千慮}

-어리석은 자의 많은 생각 -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장 경 희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우자천려^{愚者千慮}

-어리석은 자의 많은 생각 -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장 경 희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우자천려^{愚者千慮}

-어리석은 자의 많은 생각 -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장 경 희

장경희의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전 동호 (인)

심사위원 김정현 (인)

심사위원 김민정 (인)

우자천려 愚者千慮

어리석은 자의 많은 생각

우자천려 愚者千慮 어리석은 자의 많은 생각 Wondering Wandering

서론

전통은 전통으로 계승되어지기도 하고 현대화하여 진화하기도 합니다. 재료와 형식은 현대적으로 바뀌지만 전통에서 유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전통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효율과 기능을 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했던 다양한 내적 질문들을 나만의 소재와 시각적 재구성함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1-1. 욕망에 대한 의심 — 넣기에서 닫기로

작업의 시작은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한 사물들을 트렁크 안에 가득 담아내어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1, 2, 3> 그러던 중 어느 시점에 ‘뭘 담지’에서 ‘왜 담지?’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내 그림 속 사물들은 진정 나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그저 욕망이란 단어로 너무 쉽게 치환한 것은 아닌가, 욕망은 끝이 없어서 그 크기와 개수만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렁크를 다시 봅니다. 욕망(시그니피에 : 꿈, 소망, 목표)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사물들(시그니피앙)을 트렁크 안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다면 그 상징들을 비워버리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일까? 비우기보다는 일단 담아 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4, 5, 6>

트렁크를 닫으니 안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으면 알 수 없게 되는 것일까? 보여야 알 수 있는 것이 진리라면 트렁크를 닫아버리는 것은 진리를 은폐하는 행위일까? 과연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이르자 아무것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만드는 트렁크의 존재감만 어느새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1-2. 구조 만들기 — 쌓기와 연결하기

트렁크의 존재 가치는 무언가를 담아 넣는 것에도 있지만 그 안의 것들을 어딘가로 이동시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트렁크는 다른 세상으로 가기를 갈

구하는 또 다른 욕망의 상징이 됩니다. 이동, 방랑,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방식은 트렁크를 하나의 구조물로 보고 ‘쌓고 연결하기’입니다.

담혀 있는 하나의 트렁크는 하나의 육면체가 됩니다. 육면체를 쌓고 또 쌓습니다. 많은 욕망들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비어있을 수도 있는 각각의 트렁크들은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블록처럼 다음 블록과 연결되고, 쌓이면서 체인처럼 끝없이 이어집니다. 대칭과 비대칭을 섞어서 반복적으로 구성한 후 약간의 변화와 변주를 통해 표현한 트렁크들이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3. 질문하기, 소통하기

저의 작업에는 전통회화인 책가도, 동결도, 일월오봉도, 호피장막도, 태평성시도, 진찬도가 숨어 있습니다. 루이비통, 티파니, 구찌, 에르메스, 헤렌드 같은 명품도 있습니다. 저의 기억과 경험, 꿈, 욕구, 욕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닫고,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수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림 18>에서는 이제 스스로에게만 하던 내면의 온갖 질문들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말장난이란 방식을 통해 혼자서 하던 사유, 유희, 치유를 세상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조금 더 열린 결말을 얻어가는 과정으로의 그리기를 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2-1. 표현

전통의 재료를 흉내낸 다양한 재료들(가금, 펄, 피그먼트 등)과 현재적인 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재들(합성실크, 시트지, 아크릴, 스티커, 라인 테이프, 인쇄 등)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물성을 사용하는 것 또한 현대 회화의 표현 중 하나라 생각하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림 14>에서는 진채화에서 먹을 갈고 붓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그려내는 먹선초를 글리터 펜과 네임펜으로 그려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림 17>에서는 먹선초를 아크릴에 프린팅하여, 비단 천의 간접적인 비침이 아닌 직접적인 투명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순금의 귀함을 흉내낸 가금과 펄, 반짝이를 사용하고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림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에서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는 스캐닝 과정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트렁크를 하나의 사각형 혹은 육면체로 만 들고, 그 위에 금속 잠금 장치, 손잡이와 같은 장식적 요소들은 변형과 복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블록은 반복적으로 복제되어 갑니다. 같은 모양은 없습니다. 트렁크는 다양한 얼굴을 갖게 되고 그리드 속에 쌓이면서 건축적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이미지는 쉬폰과 아크릴에 디지털 프린팅을 통해 표현됩니다.

2-2. 장식

진채화는 궁중에서 기록과 장식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 중 저는 장식성에 더 주목하였습니다. 저의 작업이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그림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장식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대상을 묘사하지 않는 평면성, 바림 기법과 채도로 표현된 입체감, 제한된 색이 주는 강렬함, 강조된 직선, 문양의 반복이 주는 경쾌함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표현된 단순함은 강렬함을 갖고 있으며, 현대적인 디자인의 속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제작

건축적 구조물로 그려진 트렁크 그림은 제작 방식에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보여지고자 하였습니다. 전통 병풍은 나무로 틀을 만들고 종이나 천을 엇갈리게 이어붙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여러개의 그림이 고정된 틀 속에 자리잡아 하나의 이야기를 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그림이 펼쳐져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 10>과 <그림 11>에서는 그림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경첩을 사용하되, 4개의 그림이 각각으로 분리되거나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는 것이 모두 가능한 가변적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그림은 벽에 걸어 장식적인 용도로도, 이어붙인 상태로 공간을 꾸미고 분리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그림 12>와 <그림 13>에서는 천연 비단 대신 쉬폰(합성 실크)을 사용하여 배접이 없는 족자의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14>와 <그림 16>에서는 금박을 배재로 붙이고 배접은 하지 않은 채 비단을 나무 판넬에 붙여 마감해 무겁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결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원초적이고 인간적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던 내면의 질문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어쩌면 그림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일 것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더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한 그림은 미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전통 책가도가 갖고 있는 현대성과 장식성에서 찾고 그림에 적용시켜 보려 하였습니다. 장식과 소통이라는 이 두가지 키워드가 제 그림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
욕망의 트렁크
 비단에 석채
 1,420×730mm
 2017



그림 2
金玉滿堂
비단에 석채
690×690m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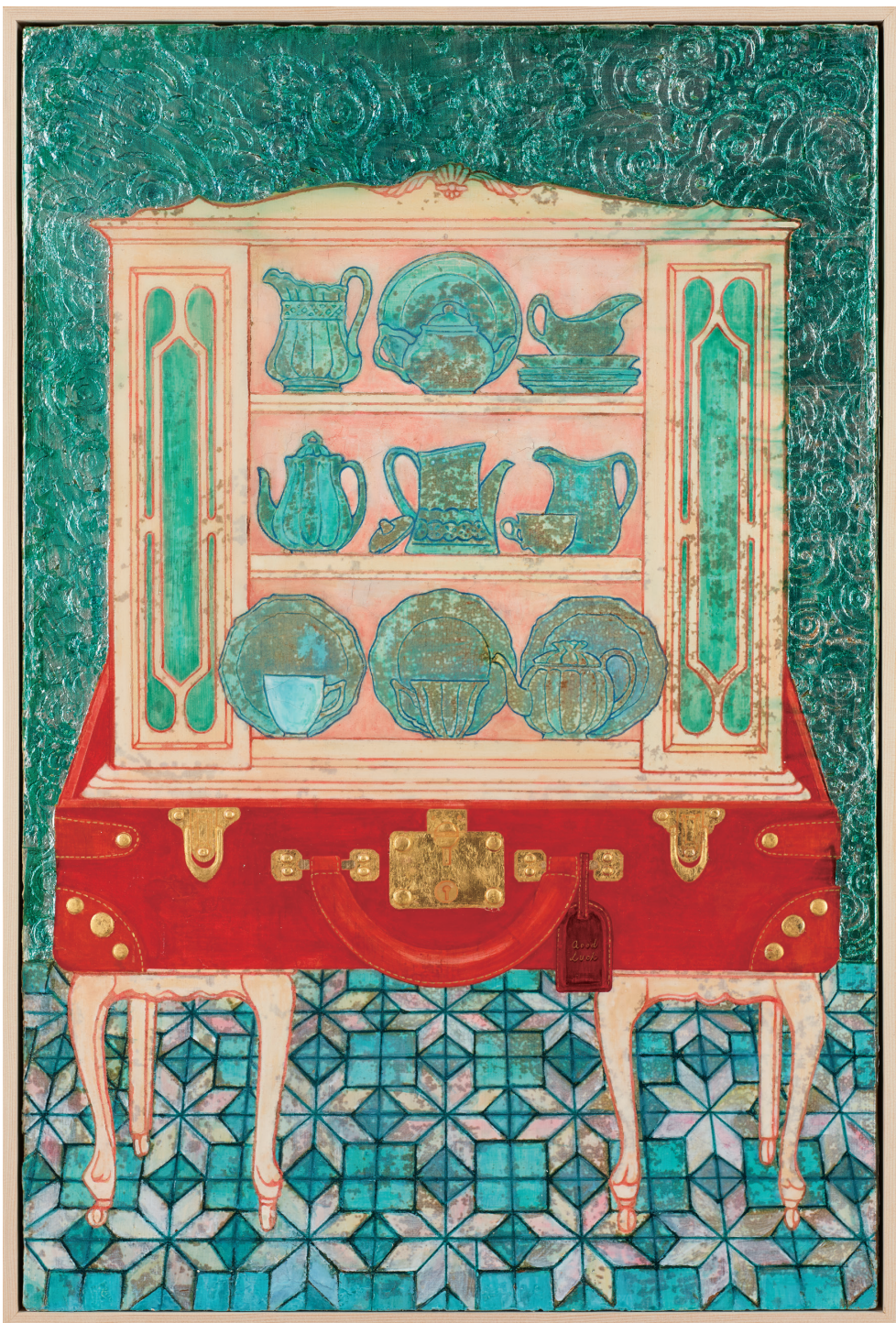


그림 3
과거의 욕망
황마, 백토, 황토, 석채, 레진
610×910mm
2018



그림 4
은폐와 탈은폐
 황마, 백토, 황토, 석채, 레진
 610×910m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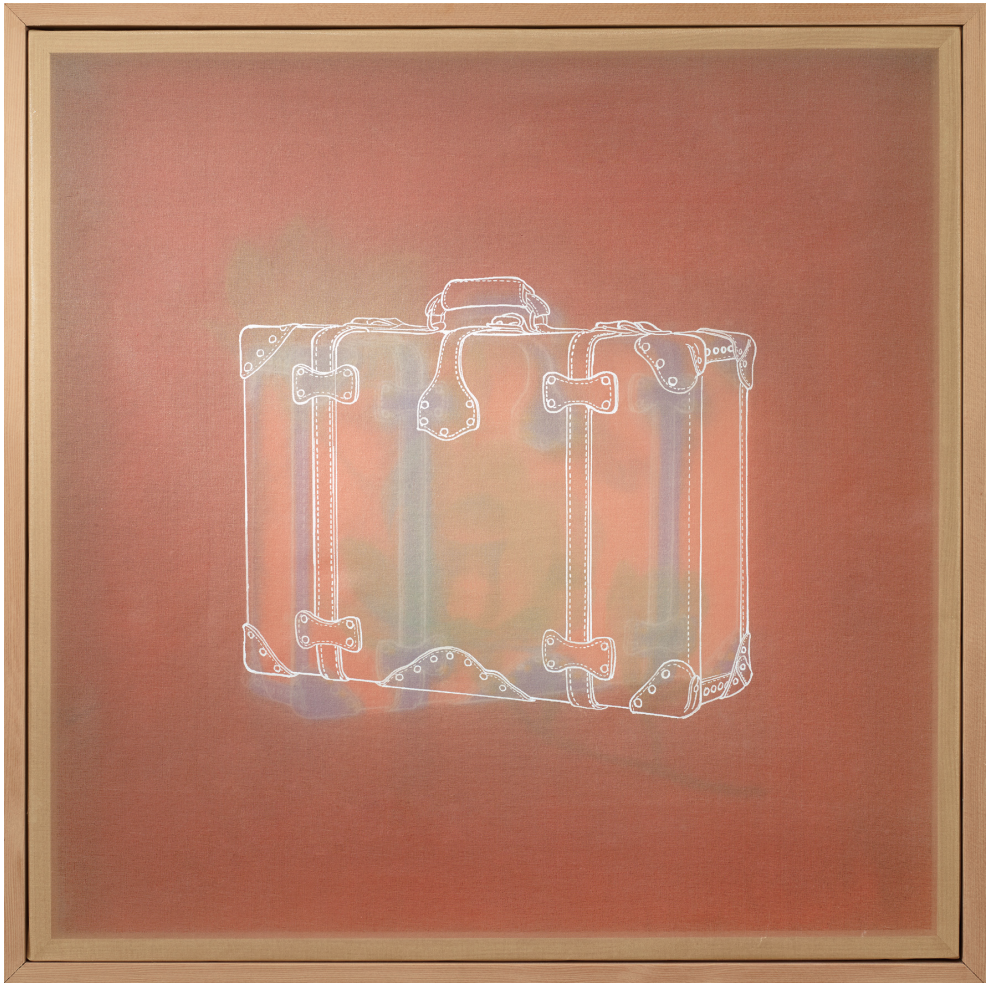


그림 5
트렁크를 닫고, 가리다
비단에 석채
445×445mm
2019



그림 6
자화상을 가리다
비단에 석채
810×1,350mm
2019



그림 7
 어색한 결합
 비단에 석채
 510×1,310mm
 2020



그림 8
어색한 결합
 비단에 석채
 415×830mm
 2020



그림 9
 전통 쌀기 : <일월오봉도>로부터
 비단에 석채
 795×1,600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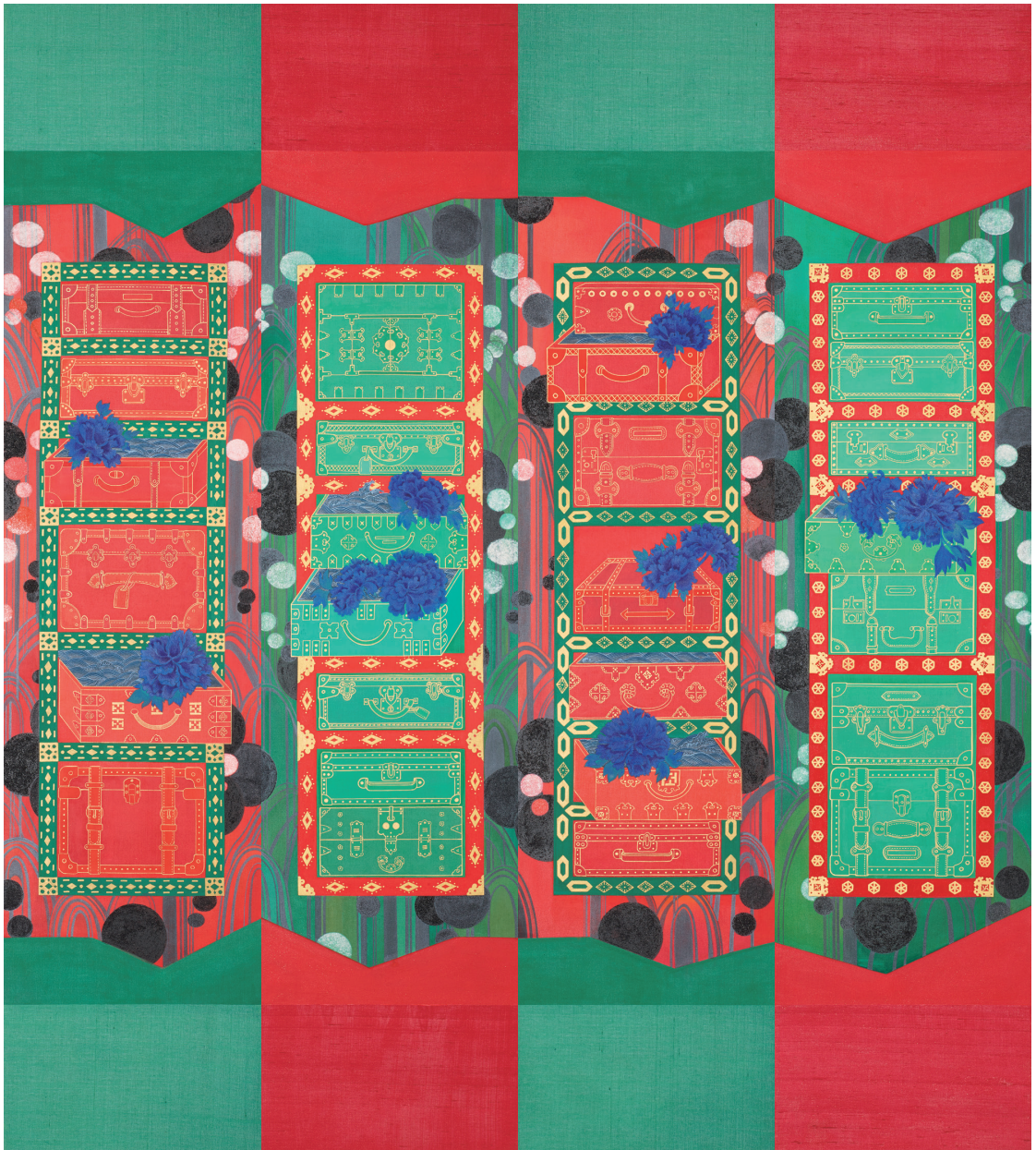


그림 10
 전통 살기 : <책가도>로부터
 비단에 석채
 1,400×1,550mm
 2021



그림 11
원가로부터
비단에 석채
1,600×1,500mm
2021



그림 12
전통 살기 : <진찬도>로부터
비단에 은필, 은박
660×1,760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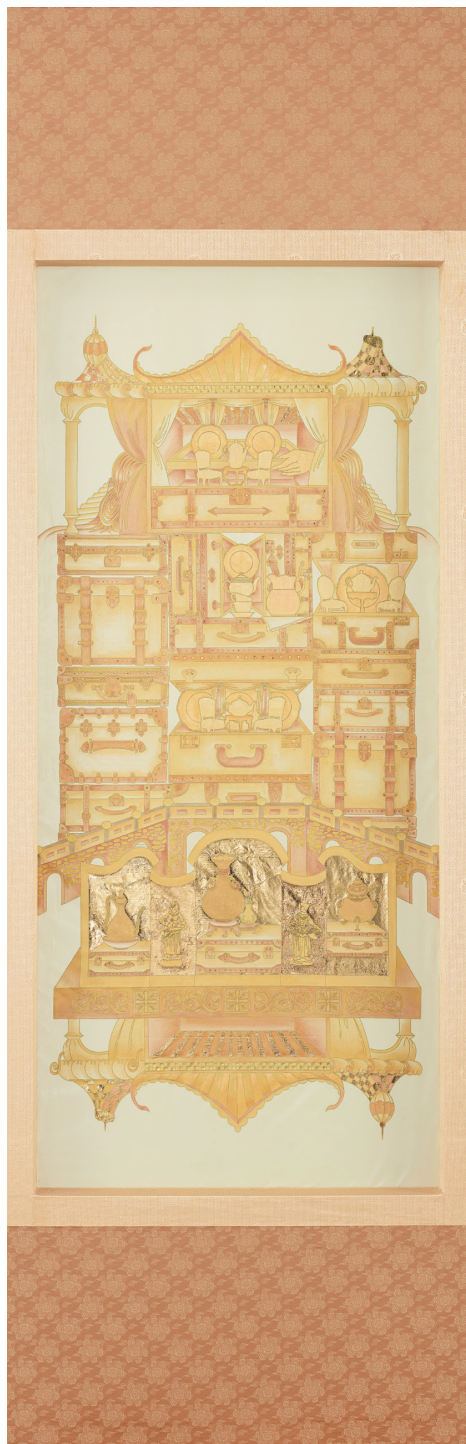


그림 13
 전통 상가 : <진찬도>로부터
 비단에 금필, 금박
 570×1,760mm
 2021



그림 14
樂course (락코스)
비단에 펜, 은박, 금박
895×1,300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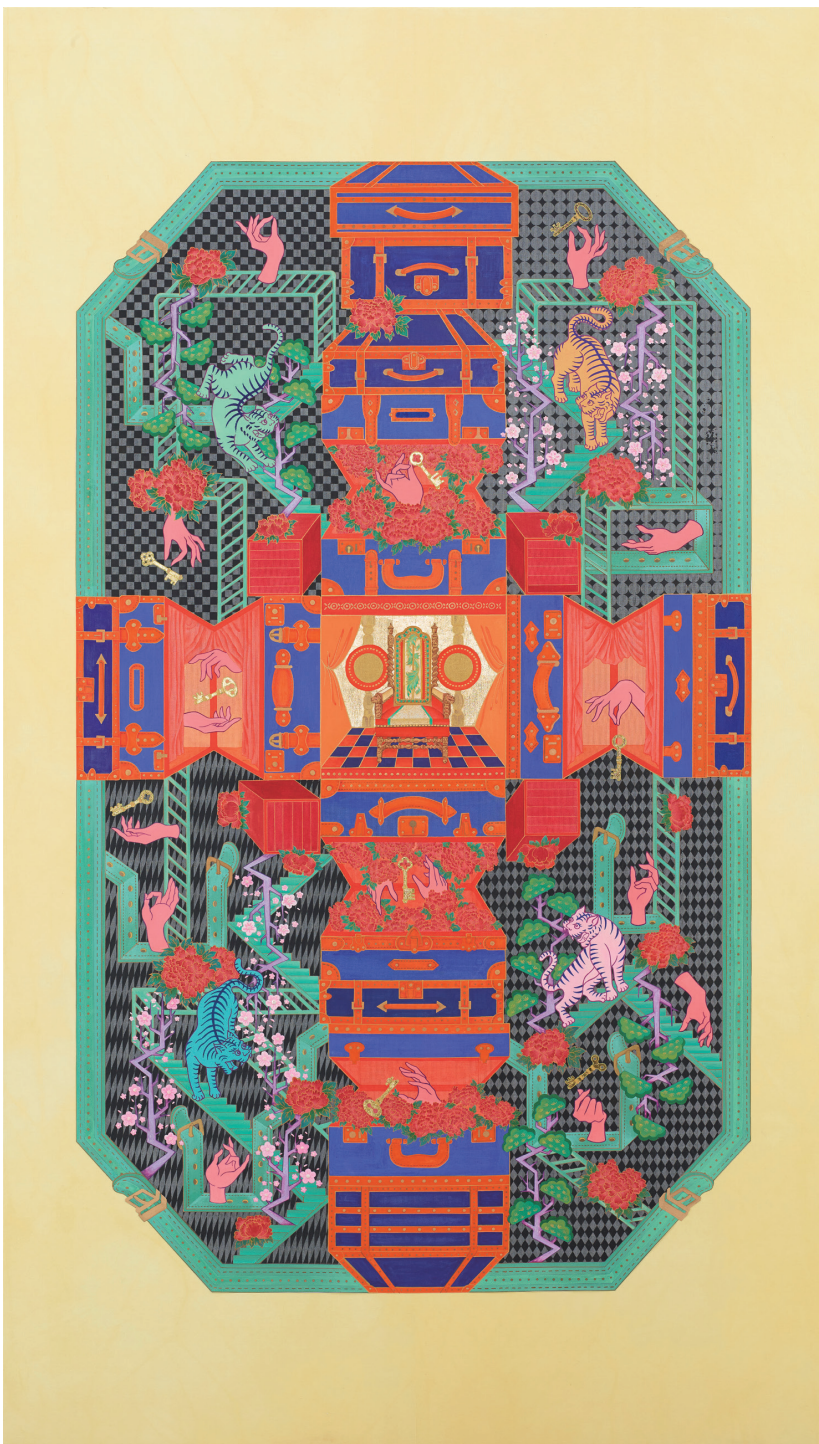


그림 15
難course (난코스)
 비단에 석채
 1,050×1,850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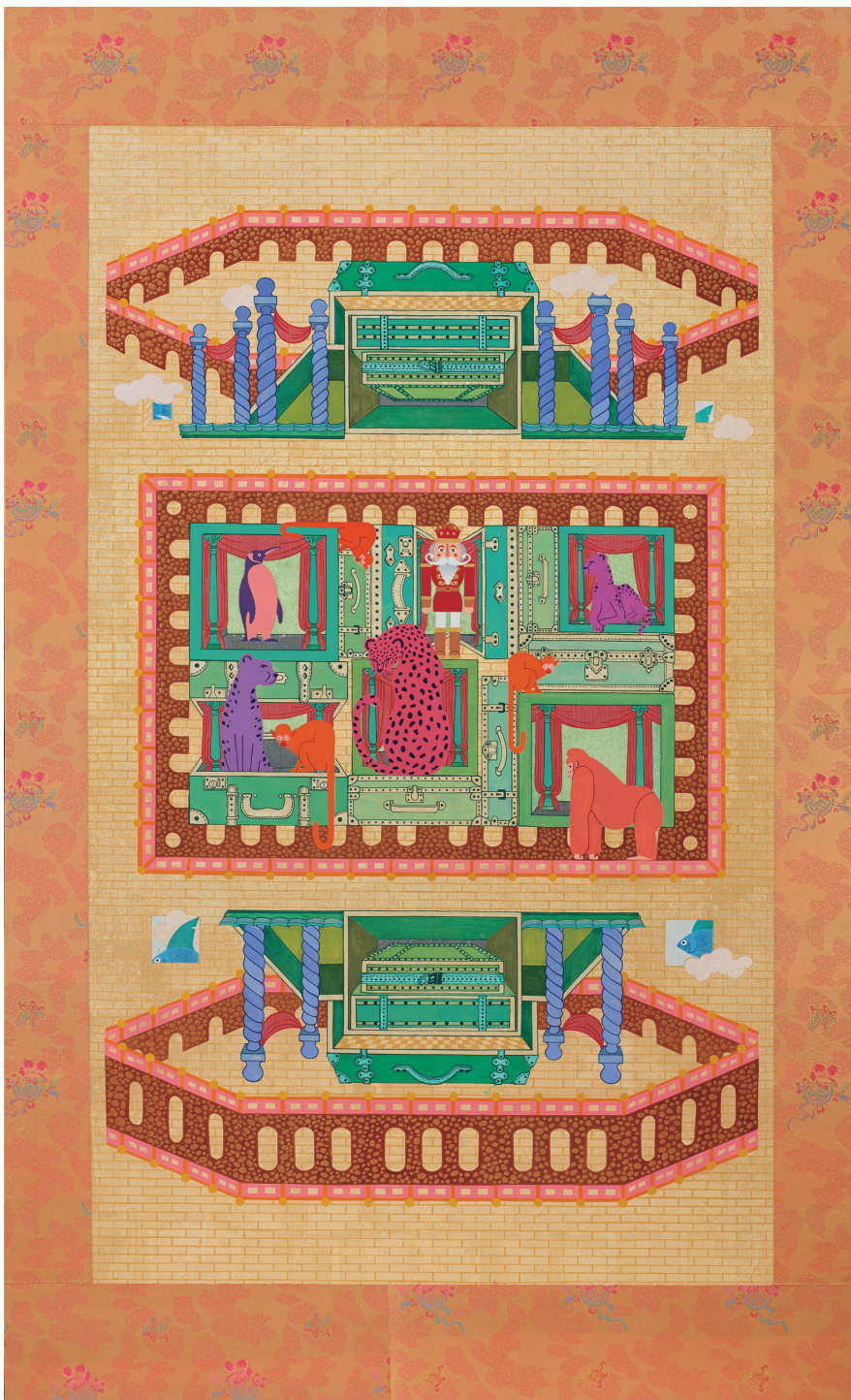


그림 16
전통 상가 : <동굴도>로부터
비단에 석채
910×1,510mm
2021



그림 17
 전통 쌓기 : <호피장막도>로부터
 아크릴에 석재, 메탈시트지
 875×1,405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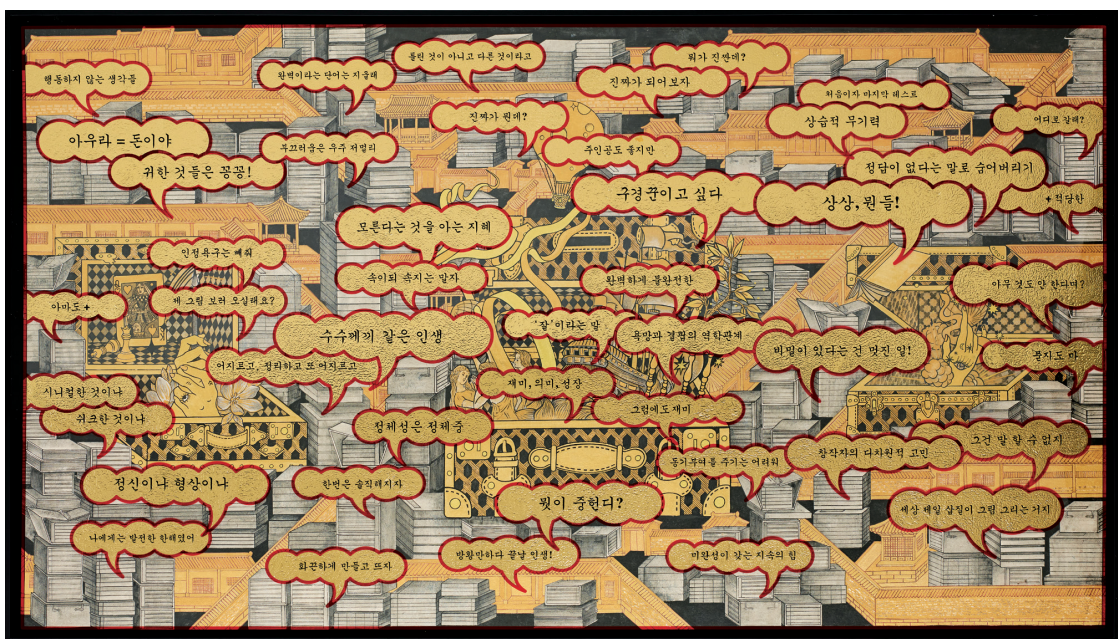


그림 18
 우자천려(愚者千慮)
 장지에 먹, 아크릴에 금박
 1,415×810mm
 2022